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 담당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11/14(토)	11/16(월)
이범우 안수집사	양용식 안수집사	이경승 안수집사	최병호2 안수집사	나영진 안수집사	조병훈1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2026년 11월 14일(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1장	다 같 이
기 도		나영진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열왕기하 20장 1~6절	인 도 자
찬 양	감사해 주는 거룩	새벽찬양대
설 교	**『남겨진 날들은 은혜입니다』**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3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0:1~6>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 참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1월 14일(토)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일이 실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 많은 날을 얻는 것보다 허락된 하루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날에도 우리 생명은 여전히 귀하며, 눈물로 지새운 밤에도 주님의 사랑은 저물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죽음의 끝에서 부활의 아침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겨진 날들의 길이가 아니라 그 모든 날을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지나온 139년의 세월을 헤아릴 때마다 그 시간 속에 새겨진 주님의 은혜를 먼저 읽게 하옵소서. 내년 창립 140주년과 헌당을 준비하는 모든 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거둔 이들뿐 아니라 빈손으로 한 해를 견딘 이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다시 피어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을 견딜 힘을, 삶의 무게에 지친 가정에는 서로를 품을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오랜 수고의 결실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 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고단한 이웃의 삶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이며, 그 끝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